



### “11대 판첸 라마를 석방하라” ‘미스 티베트’ 뽀얀 체링 총탁 당선 일성

“11대 판첸 라마인 치에키 니마를 석방하라”  
지난 15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름살라에서 올해 다섯번째로 열린 ‘미스 티베트’ 경연대회에서 미스 티베트로 뽀얀 체링 총탁(21)이 ‘당선소감’으로 한 말이다.  
지난 1995년 당시 5세였던 치에키 니마는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에 의해 티베트의 2인자인 10대 판첸 라마의 환생으로 임명됐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  
총탁은 “우리 모두는 판첸 라마가 세계 최연소 정치범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나는 그의 석방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 22회 고창 군민의 장’ 신건승씨 등 3명

‘제 22회 고창군민의 장’ 수장자로 신건승(산업군로장)씨, 국기일(예향장)씨, 이다순(효열장)씨가 각각 선정됐다.  
신건승(63)씨는 고창수박 수확시기를 6월 초로 앞당기는 등 수박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공로가, 국기일(67)씨는 지역인재 양성 등 남다른 애郷심을 발휘한 점이, 이다순(62)씨는 치매 시부모와 백모의 병수발을 수년간 한 노고가 인정되어 선정됐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 주신호 전남공무원교육원 부장 ‘3번째 저서’

무안·합평 부근수를 지낸 주신호(53) 전남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이 세번째 책 ‘요즘 같은 시대에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를 출간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맞습니다 맞고요’와 ‘내일을 향한 끝없는 질주’에 이어 주 부장의 세번째 저서. 주 부장은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의 내용과 사회현상을 통해 깨달은 교훈 등을 모아 쉬운 예제 형식으로 엮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전남체신청 ‘정품 SW 사용 설명회’ 가져



전남체신청은 18일 오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이노카페 대강의실에서 산단 입주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품 SW 사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 토론토 국제영화제, 여고생 감독 오민지(보성고3년)양 초청

# 세계적 영화감독 꿈 ‘레디~액션’

십대 소녀 감독이 또 ‘일’을 냈다.  
보성고 3학년 재학 중인 오민지(17)양의 단편 영화 ‘그 아침의 풍경’(A Scene of That Morning)이 다음달 15~1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 10회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Toronto Reel Asi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 초대받은 것이다.

‘그 아침의 풍경’은 우리가족 이야기  
지난 7월 ‘외계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녀를 통해 소통의 부재를 보여줬던 영화 ‘외계소녀, 불시착하다’가 뉴욕 맨하탄에서 열리는 ‘제29회 아시아-아메리칸 국제영화제’(AAIFF)에서 상영된 것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오 양은 “기분이 얼얼하지만 기쁘다”면서 “내 영화가 캐나다에서 상영되는 것을 꼭 보고 싶은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 못 가게 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 아침의 풍경’은 8월에 열렸던 ‘제8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20분 분량의 6mm 단편 영화다. 아홉살 소년 지호를 주인공으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가족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자신의 여동생을 주인공으로 했던 ‘외계소녀, 불시착하다’와 마찬가지로 남동생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오 양은 “영화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면서 “영화 속에서 지호가 겪는, 앞으로 겪게 될 성장통은 이미 내가 경험한 것일지도 모른다. 가족은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과 같은 존재지만 그 풍경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영화 통해 ‘소통의 부재’ 전하고 싶어  
감기 때문에 몸살이 있음에도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축하전화에 아플 새도 없다고 웃는 오 양은 ‘고 3 감독’이 느끼는 애로 사항도 털어놓는다.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계획만 하고 있어요. ‘그 아침의 풍경’도 지난 겨울에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영화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싶은데, 수능이 끝나면 만들고 싶었던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현재 오양이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외계소녀 2’. 자신의 첫 영화이기도 한 이 작품에 애착이 많은 오양은 2탄에서는 좀 더 다양한 ‘소통의 부재’를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는 1997년 아시아 지역의 극장 영화와 비디오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로 출발했다. 해마다 한 국가를 선정, 그 나라의 작품을 집중 소개하고 있다. /특선기자 ks@kwangju.co.kr

## “첫 완창 무대 ‘심청가’ 도전하고파”

###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박춘맹씨

눈 먼 아비를 홀로 남겨 두고 떠나온 심청이의 마음을 찢어질 듯 아프다. 그런 심청이의 심정을 전하는 소리꾼 박춘맹의 마음 역시 애달프기 그지없다.  
박춘맹(43·전남도립국악단원)씨가 18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내린 제 14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에서 ‘심청가’ 중 배에 실려 중국으로 떠나는 심청이가 아버지를 그리는 대목을 불러 영예의 대통령상(상금 1천 500만원)을 수상했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명망이 되는 건 아니죠.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광주시립국악단에서 명창 조상헌 선생님께 본격적으로 복과 소리를 배웠습니다.”  
박씨는 소리를 배운 건 올해로 26년째다. 소리를 좋아하는 외삼촌의 영향으로 소리를 접하게 된 박 씨는 이후 광주시립국악단에서 명창 조상헌 선생에게 본격적으로 복과 소리를 배웠다.  
박씨는 정통 판소리 공연 뿐 아니라 연극 등 다른 문화 장르와의 교류에도 관심이 많다. ‘남자군’ 등 다양한 연극 작품에 참여했고 최근 제 1회 광주국악제 공연예술제에서 공연된 광주시 연극협회의 합동공연작 ‘다시래기’에서 는 직접 작장(作唱)을 했고 무대에도 올랐다.  
“소리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교육적으로 참 좋구요. 아직까지 완창무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현재 첫번째 완창 무대도 ‘심청가’를 준비중입니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씨는 현재 중앙무용문화재관 소리 ‘심청가’ 이수자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른 참가자보다 훨씬 좋다는 평을 받았다.  
박씨는 소리를 배운 건 올해로 26년째다. 소리를 좋아하는 외삼촌의 영향으로 소리를 접하게 된 박 씨는 이후 광주시립국악단에서 명창 조상헌 선생에게 본격적으로 복과 소리를 배웠다.  
박씨는 정통 판소리 공연 뿐 아니라 연극 등 다른 문화 장르와의 교류에도 관심이 많다. ‘남자군’ 등 다양한 연극 작품에 참여했고 최근 제 1회 광주국악제 공연예술제에서 공연된 광주시 연극협회의 합동공연작 ‘다시래기’에서 는 직접 작장(作唱)을 했고 무대에도 올랐다.  
“소리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교육적으로 참 좋구요. 아직까지 완창무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현재 첫번째 완창 무대도 ‘심청가’를 준비중입니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씨는 현재 중앙무용문화재관 소리 ‘심청가’ 이수자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mailto: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p><b>학측</b> ▲민병옥씨 4남 양벌창군 정병철(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씨 장녀 지윤양=21일(토) 오전 11시 30분 예벌부서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김신익씨 장남 윤혁군 김천주(광주자동차점장비사업조합 전무이사)씨 장녀 정선양=21일(토) 낮 12시30분 예벌부서 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김신일씨 장남 정원(행정자치부 사무관)군 남영광(전 담양군청)씨 장녀 지숙(의사)양=21일(토) 낮 12시30분 상록화관 장미홀. ▲김영동(해남군 문화예술회관장)씨 장남 경남(개인유튜버)군 최청일씨 3녀 경아(SK텔레콤 광주지점)양=21일(토) 낮 12시10분 해남베르사유벤틱룸 1층.</p>	<p>동 월광교회 주차장.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 <b>동창·동문회</b> ▲북성중 제 19회 동창회(회장 김대환) 월례회=19일(목) 오후 7시 사랑채. 673-4966 ▲개교 60주년 기념 동맹인의 밤 및 광주공교 총동창회(회장 김규동) 체육대회=21일(토) 오후 6시 모교 체육관. 22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 운동장. ▲제 8회 조대부고인의 밤=21일(토) 오후 6시30분 제일오피스텔 스퀘어웨딩홀 19층 무궁화홀. 234-5666 ▲송정중 총동문회=21일(토) 오전 11시 모교(구 송정여중) 대강당. 011-610-0694 ▲화순이양중 총동문회(회장 팔) 한마음축제=22일(일) 오전 10</p>	<p>시 광주 염주체육관 양궁경기장. 232-7000 ▲제 17차 조대부고 총동문 친선 체육대회=22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운동장. 224-1461 ▲제 5회 서강고 총동문가족 체육대회=22일(일) 오전 10시 모교 대운동장. 225-2914, 018-392-1024 ▲전남공교 총동문회 체육대회=22일(일) 오전 9시 신항동 모교운동장. 521-5327 ▲창평고 졸업 20주년 기념축제=22일(일) 오전 9시 모교 탄력관. 016-604-9922 ▲재광 특랑남초교 동문회 창립 총회=25일(수) 오후 6시30분 화사당. 226-9282, 011-623-9696 ▲재광 전주영생고 총동문회(회장 배기영) 모임=26일(목) 오후 6시 구진포장. 376-2292 ▲재광 고창중·고 총동창회(회장 김기동) 가족체육대회=28일(토)</p>	<p>오전 10시 OB맥주 잔디구장. 010-4506-5904 ▲간직북초교 총동창회 제 2회 지전별 한마음 축제=29일(일) 오전 10시 간직북초교 운동장. <b>모임</b> ▲광주언론인회 월례회=19일(목) 낮 12시 신성식당. 232-0176 <b>종친회</b> ▲영광김씨 광주종친회(회장 김인규) 월례회=19일(목) 오후 7시 백운산회관. 222-4569 ▲창녕조씨 광주 전담 청년회 모임=19일(목) 오후 7시 광명해물가든식당. 010-6688-8983 ▲창원황씨(회장 황양선) 철원모사 참배=24일(화) 오전 9시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출발. ▲전주리씨 대동총영원 광주전남 청년이화회(회장 리진우) 유적지 순례=21일(토) 오전 7시 무등경기장 앞. ▲이재수(대지교회 담임목사·청소년 교육선교회 광주지회장)씨 별세 오소임씨 삼매 주훈·예송·예찬씨 부친상=발인 20일(금) 금호장</p>
--	--	--	--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정계공원

# 가족실업묘 특별분양

☎ (062) 521-1100